



전통의례, 성년식

NAKS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3 기

위원장: 김선미(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위원:

송아리(새하늘한국학교)

윤희성(시애틀 통합 한국학교)

정은정(벤엘한국학교)

학습 지도안

1. 학습단원: 성년식
2. 학습목표: 전통의례인 성년식에 대해 이해한다.
3. 학습평가: 학습 참여도 위주로 평가 하며,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가정에서 경험한 전통의례에 대해 말하기(생일, 결혼, 제사 등) ➢ 성년식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 성년에 대한 의미 알아보기	10 분	관련 이미지 성년식 사진
전개	1. 한국의 여러 전통의례 - 백일, 돌, 성년식, 환갑 2. 성년의 의미 3. 우리나라 역사 속의 성년식 ➢ 신화 속의 성년식 ➢ 삼한 중 마한의 성년식 ➢ 고려, 조선 시대의 성년식 ➢ 오늘날의 성년식 4. 옛날 성년식과 오늘날 성년식 비교 5. 다른 나라의 성년식	5 분 5 분 15 분 10 분 5 분	• 사진 • 한복 • 이미지 자료 • PPT
정리	성년식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 확인한다.	5분	학생활동자료

교사용 지도 자료

❖ 한국의 여러 전통의례 – 백일, 돌, 성년식, 결혼, 환갑, 제사 등

❖ 한국의 여러 전통의례 중 나이에 따른 의례

1. 백일(百日)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백 일째 되는 날 또는 그날을 기념하는 잔치.

20 세기 초까지만 해도 백일 전에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서 산후 백일이 되는 날이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는 뜻에서 특별히 그 날을 축하하는 의례를 행한다.

2. 돌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다.

돌잔치의 '돌'은 12 개월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출산시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았고 돌 이전에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에 1 년을 잘 지낸 아이를 축하하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에서 시작됐다.

3. 성년식(成年式)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점차 완성된 인간으로 자신을 형성시킨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기, 즉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시기는 한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자리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때 어린이와 성인의 획을 긋는 계기로서 의식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년식(成年式)'이다.

성년이란 신체와 지능이 완전히 발달하여 법률상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나이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 19 세로 규정하고 있다.

4. 환갑(還甲)

만 60 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문화로 회갑(回甲)이라고도 한다. 간지는 60 년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해가 돌아오므로 회갑은 육십갑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 성년의 의미

신체나 지능이 완전히 발달되어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보는 나이.

한국 민법에서는 만 19 세로 성년이 되며,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순화어는 '어른'이다.

영어로 성년은 다수를 뜻하는 'majority'이다. 성년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누군가의 보호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minors'라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성년 나이는 연방법(Federal Law) 이 아닌 주법(State/Province Law)에 따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법률에 의해 성인으로 간주되는 성년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만 18 세를 성년의 나이로 정하였지만 몇 개의 주는 예외적이기도 하다.

- Delaware/Nebraska: 만 19 세
- Arkansas/Nevada/Ohio/Tennessee/Utah/Wisconsin: 만 18 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 빠른 날짜

❖ 우리나라 역사 속의 성년식

1. 신화 속의 성년식

단군신화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만 먹고 3·7 일을 지낸 대목이다. 단군신화 속에서 '굴'로 명시된, 즉 속세와 격리된 신성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맵고 쓴 마늘과 쑥만 먹으며 절제하고 인내하는 교육을 받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른 없는 물격(物格)의 상태를 벗어나 인격을 갖춘 진인(眞人)이 되어 그 나라의 문화전통을 이어갈, 사회의 새로운 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삼한 중 마한의 성년식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와 『후한서(後漢書)』에는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성년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살을 뚫고 줄을 매어 한길 남짓의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짓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의 의미는 육체적 시련을 받는 고행 과정을 거쳐 전사(戰士)로 육성되는 동시에 한 사람의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3. 고려, 조선 시대의 성년식

기록상으로 고려 광종 16 년 (965 년)부터 시작하여 조선 시대를 거쳐 1940 년경까지 주로 왕실과 문무관사대부 등 상류계급에서 행해져 왔던 관례(冠禮)와 계례(笄禮)를 우리 전통 성년식이라 할 수 있겠다.

관례(冠禮)란 한국과 중국의 전근대사회에서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갓(관건)을 씌우는 의식을 말한다.

계례(笄禮)란 여자의 머리를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말한다.

관례와 계례를 거쳐 어엿한 성인이 된 자들에게는 상투를 틀고 쪽을 지는 등의 겉모습의 변화 이외에도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우선 주위의 어른들이 이들에게 '-해라'라는 낮춤말씨가 아닌 '-하게'라는 보통말씨로 높여서 말하게 되며, 또한 어른들이 이들로부터 절을 받을 때에도 앉아서 받지 않고 답배(答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 이들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지 않도록 남자의 경우는 '자(字)', 여자의 경우는 '당호(堂號)'라는 별명을 지어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의 사임당이라는 명칭이 곧 당호인 것이다.



관례



계례

4. 오늘날의 성년식

전통적 관례와 계례가 사라진 후 다시 현대적 의미의 성년식이 행해지게 된 것은 1973 년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4 월 20 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한 이후부터이다. 1975 년부터는 가정의 달인 5 월로 옮겨 5 월 6 일로 변경 시행하여 오다가 이 날이 휴일과 겹쳐 기념 행사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1985 년부터는 매년 5 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로 지켜지고 있다. 전통적인 관례나 계례가 15 세를 전후하여 치러지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19 세를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년식은 일정한 절차가 없고 전통의 것을 가미한 절충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가정에서는 대학 입학식, 회사 입사시, 성년의 날 또는 생일에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말과 함께 선물을 주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축제시 재현하거나 또는 과별로 성년의 날에 교수님과 선·후배가 축하해 주는 의식을 치르는 곳도 있으며, 회사 및 공공기관에서도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축사를 한 후 성년 선언과 성년 선서 후 선물을 주기도 한다.

❖ 옛날 성년식과 오늘날 성년식 비교

	옛날 성년식	오늘날 성년식
시기	남자는 15-20 세, 여자는 15 세 정월 또는 혼례 전에 치러졌다.	법률적으로 만 19 세가 되는 해에 5 월 셋째 주 중 편리한 날을 정하여 치러지기도 하고 주최측이 편리한 날짜에 진행하는 등 융통성이 있다.
장소	가정에서 행하여졌다.	주택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로 가정에서의 의식 진행이 곤란해져 직장, 학교 등에서 치러지고 있다.
주관자	남자는 부(父)와 남자 큰손님, 여자는 모(母)와 여자 큰손님 등으로 남녀에 따라 다르게 한정하였다.	부모의 주관 하에 하거나 직장, 학교 등에서 남녀 구분없이 큰손님을 모시고 폭넓게 치러진다.
복장	신분제도에 따라 또는 어른과 아이의 모습을 구분하여 세 번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바꾸어 썼다.	집단 성년식인 경우 대표자만 의관을 갖추게 하고 대부분 현대의 단정한 복장을 하고 참석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년식에서도 전통 시연 때 한복을 입거나 비녀, 관을 씌우기도 한다.
자(字)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실례였으므로 관례를 행한 후에는 자(字)를 지어 불렀다.	오늘날은 이름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종교에 따라 세례명이나 법명이 있으며, 직장에서는 직책명이 있기에 자(字)나 당호(堂號)는 점차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축사내용	가족 간의 예절, 윤리 중심으로 쓰였다.	전통관례의 축사 내용에 더하여 성년 선서, 성년 선언, 특강, 수훈의 내용에는 직장인, 사회인, 경제인, 국민,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성차별적이지 않은 평등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적/집단	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집단 성년례가 많아졌는데 이 경우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성년식 본래의 참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참여범위	가족과 친지들이 참여하였다.	가족, 친지 외에 직장이나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참여자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또한 특별 공연 등으로 축하와 즐거움을 더하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다른 나라의 성년식

1. 이디오피아 하마르 족의 성년식

하마르 족의 경우 성년식을 못 치른 소년을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의 우클리(당나귀)라고 부른다. 이 종족의 성년식은 발가벗은 몸으로 몇 마리 나란히 세운 소 등을 타고 왕복해야 통과가 인정된다. 무사히 통과하면 축하를 받지만 만일 소 등에서 떨어지면 평생 놀림감이 된다.

2. 아프리카 한 부족의 성년 예행 의식

성년 예행 의식으로 미혼의 처녀 등에 채찍질을 해서 상처를 낸다. 울거나 찡그리거나 고통을 표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성년 여성으로서의 인내심, 복종심, 순종을 테스트받는 통과예행이다.

3. 남태평양 펜타코스트 섬 원주민의 성년식

성인이 되는 자격 요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이곳 주민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발목에 포도넝쿨이나 칩뿌리 등을 감고 30m 정도 높이의 탑에서 뛰어내리게 했다. 소년들은 1m 정도 높이에서 멈춰야 했는데 그야말로 생사를 건 도전이었다.

성년식 통과예행으로 치르던 원주민의 의식을 아이디어로 삼아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놀이로 창안한 것이 현대의 번지점프이다.



이디오피아의 성년식



아프리카 한 부족의 성년 예행 의식



펜타코스트 섬 원주민의 성년식

학생 평가 문제

1. 우리 나라 역사에서 성년식은 어느 시대부터 있었는가? 고조선
2. 미국에서의 보통 성년은 몇 세 이상을 말하는가? 18 세
3. 한국에서의 법으로 정하는 성년이 되는 나이는? 1
 - ① 만 19 세 ② 만 20 세 ③ 만 18 세 ④ 만 17 세
4. 성년식의 예식 중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갓(관건)을 씌우는 의식을 부르는 이름은? 관례
5. 성년식의 예식 중 여자에게 여자의 머리를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부르는 이름은? 계례
6. 성년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 ① 성년식은 한국에서만 있었다.
 - ② 성년식은 남자에게만 행해졌다.
 - ③ 남태평양 원주민의 성년식 아이디어에서 번지점프 놀이가 생겼다.
 - ④ 성년식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음을 축하하는 예식이다.

참고단어

- 전통의례 traditional rituals
- 출생 birth
- 사망 death
- 기념 commemoration
- 영아 baby, infant
- 산후 after giving birth, postpartum
- 고비 crisis
- 의례 ceremony, rite, ritual
- 전통문화 traditional culture
- 출산 childbirth, delivery
- 신생아 newborn baby
- 사망률 mortality, death rate
- 무병장수 good health and long life, health and longevity
- 풍습 custom
- 유아기 early childhood
- 청소년기 an adolescent period
- 청년기 adolescence
- 장년기 manhood
- 노년기 old age
- 형성 formation, development
- 사회적 존재 social being, social relation
- 과정 process
- 의식 ceremony
- 법률적 행위 능력 legal capacity, capacity to act
- 민법 civil law
- 규정 rule, regulation
- 간지, 육십갑자 the sexagenary cycle
- 혼인 marriage

- 순화어 refined word
- 보호 protection
- 통제 control
- 간주 regard (as)
- 예외 exception
- 신화 myth, mythology
- 대목 part, passage
- 속세 the world, secular society
- 격리 isolation
- 신성 sacred, holy
- 절제 moderation, self-control
- 인내 patience, endurance
- 물격 material status
- 인격 personality, character
- 진인 real human being
- 한길 남짓 about 1.8m
- 고행 penance, self-mortification
- 전사 warrior
- 자격 qualification
- 부여 give, grant
- 상류계급 the upper classes
- 답배 bow back
- 명칭 name, title
- 절충형 compromise style
- 재현 reappearance
- 정월 the first month of the year
- 융통성 flexibility
- 주관자 a person that holds the event
- 복장 dress, attire

- 신분제도 a class system, a status system
- 의관 clothing, attire
- 자(字) nom de plume, nick name
- 세례명 baptismal name
- 법명 Buddhist name
- 직책명 title name
- 무방 fine
- 축하 congratulatory message
- 예절 manners
- 윤리 ethics, morality
- 수훈 distinguished services
- 참여범위 participation range
- 복종심 obedience
- 순종 submission
- 담력 courage
- 생사 life and death
- 도전 challenge
- 창안 an original idea, an originality

자료출처

- 김연미 외, 『성년식을 통해 본 우리의 교육』
- 곽형식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형설출판사, 2000
- 권성아, 『홍익인간사상과 통일교육』. 집문당, 1999
- 박대순, 「조선시대 관례의 사적 연구」. 大學碩士 學位論文, 檀國大學校, 1987
- 유영대, 『새우리말큰사전』상. 삼성출판사, 1991
- 신창호·서은숙, 『한국사상과 교육윤리』. 서현사, 2003
-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한국유교학회, 2002
- 이원호,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교육의 역사』. 문음사, 2002.
- 이정우·김연화·김경아, 「전통·현대의 성년례비교 및 바람직한 성년례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生活科學 研究誌』, 14(1999): pp.17-33.
- 한기언, 『教育史學』. 한국학술정보, 2004.
- KBS 문명다큐멘터리 <오지의 사람들>